호남대, 외국인 유학생 적응 돕는 '글로벌 깐부' 가동

유학생-한국 학생-교원 80여명 참여해 '정서적 돌봄'

가족형 멘토링 '파마'·학습지원 튜터링 '하이하이' 등

호남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우리는 글로벌 깐부' 1학기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호남대 국제교류처는 최근 교내 IT스퀘어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교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는 글로벌 깐부' 프로그램의 하나인 가족형 멘토링 'PaMa'(파마), 학습지원 튜터링 'Hi! High'(하이 하이)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과 학업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 돌봄은 물론 참여자 상호간 문화이해 및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목적으로, 6월 중순까지 10주 동안 진행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형 멘토링 'PaMa'(파마)는 부모를 뜻하는 'Papa Mama'의 줄임말로 교원과 한국학생이 멘토로, 외국인 유학생이 멘티로 참여해서 '글로벌 한가족'처럼 상호 교류하며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지원 튜터링 'Hi! High!'(하이 하이)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인 재학생과 교원이 전공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유학생의 안정된 한국생활 정착과 마음 돌보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 △학업 지원, 진로상담 지원 △문화교류 활동 등 국제적인 시각과 경험을 서로 제공하게 된다.

호남대 국제교류처는 최근 교내 IT스퀘어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교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는 글로벌 깐부' 프로그램의 하나인 가족형 멘토링 'PaMa'(파마), 학습지원 튜터링 'Hi! High'(하이 하이)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유학생 정리리(경영학부)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업이 쉽지 않지만, 이번 멘토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인 멘토 오찬미 학생(항공서비스학과)은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설렌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제1차 투자유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역량 강화교육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트럼프 2기 전략 등 공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제1차 투자유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투자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중요성'과 '글로벌 투자 동향'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투자 결정요인과 성공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박용수 코트라(KOREA) 선임전문위원은 '외국인 직접투자 개요', '외국인 투자 대내외 여건과 전망', '외국인 투자유치 타케팅 맞춤형 IR' 등에 설명하고 올해 투자유치 글로벌 전망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방향에 대해 교육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유치 전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전남도, 청렴문화 확산 공직자 반부패 교육

고위 공직자·최근 승진자 등 대상…사례 중심 특강

전남도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을 최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실시했다.

청렴교육은 고위 공직자, 최근 승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한 세상을 위한 반부패 법령'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선 공직자의 윤리의식 함양, 공공분야 부패사례 분석,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다뤄졌다.

최광식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알기쉽게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남을 위해 매년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렴 향상 대책을 수립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강진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강진군지부와 강진군 범농협 임직원들은 최근 강진군 칠량면 영복리 작약꽃 재배 농가에서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농협 강진군지부와 강진군 범농협 임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인 영농지원을 결의했다.

이들은 발대식 이후 작약꽃 솎기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도 실시했다.

장영조 농협 강진군지부장은 "함께 땀 흘려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과 관내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해 강진군 범농협 임직원들은 영농철 일손돕기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농협 광주본부,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

농협 광주본부는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소비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 본부 주차장에서 '금요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이를 위해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광주경제지원단, 관내 15개 농·축협 담당자와 광주시 유통담당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갖고 직거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금요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육성 품목인 방울토마토, 가지, 애호박, 부추, 풋고추 등을 시중가 대비 50%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산지특판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인절미 나눔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관 운영, 농산물 룰렛 이벤트 등 다채로운 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PEOPLE

2025년 4월 7일 월요일

나주시

영남 산불피해 지역에 온정 손길

나주시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역 특산품이자 간편 식품인 누룽지 150상자(12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또 지역 김 생산업체인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도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도시락김 1200상자(1800만 원 상당)를 기부해 총 30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이 산불 피해 지역으로 전달된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어촌공사 함평지사

함평인재양성기금 200만원 전달

함평군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함평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전달하며 함평군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서정진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은 "무궁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 인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꺼이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해주신 기탁금이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걱정하지 않도록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 (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전화 062-370-7030 | 팩스 062-385-5400 | 이메일 gndn2018@naver.com

운세 (음력 3월 10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쥐
48년생 자녀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0년생 배우자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72년생 집안 일에 충실하다보면 잘 풀린다
84년생 직업·직장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음
96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소
49년생 가족에게 관심을 돌려 보라
61년생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전념하라
73년생 양보하면 오히려 득이 될 것
85년생 사랑 운이 좋은 시기
97년생 소신을 갖자

호랑이
50년생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격
62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 될 것
74년생 오락에 빠져 돈을 허비하기 쉽다
86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
98년생 남자와 말다툼을 주의

토끼
51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라
63년생 판세의 결정적인 요인이 보인다
75년생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운
87년생 힘만 허비하게 되니 때를 기다리라
99년생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

용
52년생 의견 충돌이 있나 지인 말을 따르라
64년생 거래처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
76년생 귀인의 은혜를 입게 될 것
88년생 부동산에 투자하라

뱀
53년생 만사가 순조로울 것
65년생 경쟁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위
77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리라
89년생 윗사람 말에 상처를 입는 운

말
54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하다
66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히라
78년생 문서의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
90년생 좋은 아이디어도 헛수고

양
55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멀리하라
67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다
79년생 감당할 만한 일이 생긴다
91년생 운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원숭이
56년생 좋은 기운이 귀하를 맴돌고 있다
68년생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80년생 성실함 하나로 이룰 수 있다
92년생 생기발랄한 판도가 조성된다

닭
57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뒤탈이 없다
69년생 예상되는 애경사에 대비하라
81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무시하지 말것
93년생 반복되는 형상이로다

개
58년생 신병 조심 조기검진이 필요함
70년생 이슬에 옷 젖는줄 모른다
82년생 부부 화해하면 이익이 있을 것
94년생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돼지
59년생 문서가 오간다면 좋은 결과
71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83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
95년생 과도한 욕심은 귀하를 망치게 한다

풍수·역리문화원 | 광주 동구 충장로 2가 1-1 | blog.naver.com/soed9999 | 010-3629-3566